



2018년 신년사 | 쥐구멍 별들날

임재만 중환자실장

ICU Homecoming day

김순희 중환자간호팀장

중환자실 동료 여러분,

무술년 새해 건승을 기원합니다.

저는 작년에 몇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환자나 그 가족들의 손편지들이었습니다. 이메일의 홍수 속에 묻혀 있다가 오랜만에 보는 '아나로그' 메일들이었습니다. 아직 덜 회복된 환자의 흔들리는 필체를 보며, 또는 가족들이 풀어 놓는 절망과 환희를 읽으며 중환자실이라는 곳의 의미를 새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자들은 생존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분들이었습니다. 아, 더 이상은 안되겠다-이렇게 마음에서 단념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나 알맞은 때 알맞은 조언을 준 교수님, 꺼져 가는 등불 같은 환자를 맡아 자기 일을 흔들림 없이 수행했던 담당 전공의와 간호사들, 이런 동료들 때문에 죽음의 문턱에서 귀환했던 것입니다. 이 지면을 빌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중환자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중환자실 의료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턱없이 모자란 인력입니다. 그래서 양질의 의료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의료로 하기 위해서도 초인적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제가 중환자실 실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마음을 쓴 것이 인력 보강입니다. 그동안 몇 가지 명목으로 인력이 늘었고, 올해는 서관중환자실에 6명의 전담간호사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숙련성이 요구되는 업무들이 안정되어 환자 안전이 좋아질 것은 물론, 간호사들의 고된 일들이 다소나마 덜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쥐구멍에도 별들 날이 있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환자실이 그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병원은 개원 때부터 선도적으로 중환자실에 투자를 해왔으나 개별 병원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햇볕 같은 강력한 빛은 복지부의 바른 정책입니다. 중환자학회는 병원중환자간호사회와 함께 중환자실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알리고 제도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젠 별이 들지 모르지만 별의 각도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끼리라도 서로 따뜻한 별이 되어 주었으면 합니다. 올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먼저 신뢰하고 먼저 복돋아 줍시다.

2017년을 마무리하며 12월 28일 중환자실 역대 보직자들을 모시고 Home Coming Day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전, 현직 중환자실 실장과 중환자간호팀장, 진료과별 책임 의사와 UM 등 총 33명이 참여해주었습니다.

1989년 개원 이래 Critical care에 대한 열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며 중환자실에서 함께 고군분투했던 역사 속 기억들을 소환하는 순간 우리는 한 마음이 되었고, 과거가 현실로 이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추억들 중 중환자실에서 동거동락하며 한마음으로 human과 profession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고 의미와 가치를 담았던 슬로건 - FEEL ICU((F)First, Patient, (E)Exciting Energy, (E)Enhance Safety, (L)Leader, Critical care) - 가 차례로 떠오르며 중환자실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문화로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역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중환자실을 얼마나 진정으로 아꼈는지, 그리고 매 순간 기여하기 위해 쏟았을 열정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고, 그 모든 것에 감사함이 더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대한 훈훈한 기억과 아찔했던 순간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우리는 서로 다른 공간에서 호흡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늘 함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 진정한 개입은 처음의 우려와는 달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뜻이 청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따뜻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역사의 한페이지로 기억될 2017년을 보내며 그곳의 주인공들인 중환자실 가족들 모두에게 깊은 애정과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8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ICU News

MICU1

- 남사간호사 (이지호, 이주마, 김영용) refresh : 일본 나들이
- 해외의료봉사 : 정수간호사(베트남, 필리핀)
- 우수직원 수상 : 이경숙조무원
- 서울대 병원 MICU 경학(1/5)
- Deep terminal cleaning(1/12)

MICU2

- 근무지 이동 : 김경란 간호사(NSICU → MICU2)
- 승진 : 김경란 간호사(교차 승진)
- 포상 : 임윤주 간호사(우수직원 수상)
- Duty CN모임(1/26): 2018년 부서운영 계획

SICU1

- 행복나누기 봉사(1/15)
- 인턴십 : 1사(1/15~19), 3사(1/29~2/2)
- 타자나바회봉사 : 홍석경교수님(1/12~19)
- 부서이동 : 배미희(S2→ S0)

SICU2

- 102S 병동 간호사 케버릴 근무 적용
- 최혜림, 유정아
- 외과중환자 심포지움 개최(1/27)
- 부서이동 : 서혜림

NSICU

- 부서이동(1/1) : UM 정형숙, RN 박연연
- 출산(1/19) : 장연희
- 중환자간호팀 UM & CN 워크샵(1/20)
- UM 정형숙, CN 이미연
- 장기휴가(1/4-10) : 한솔 간호사
- 타자나바 의료봉사(1/11-20) : 류정주 간호사
- 보습교육- 심폐소생술과 응급수술의 이해(1/24) : 김홍유, 김려송 간호사

NICU1

- 간호관리과 리더십 교육(1/16~17) : 임승복UM
- 병상수를 38병상에서 40병상으로 변경하고 간호사 4명 증원
- Drager ventilator(VNS00) 2대 입고

ACU

- 김정현 RN 근무지 이동 : 적맥주사팀 → ACU(1/1)
- ACU 조무원 준병회 및 이동 직원 환영회(1/19)
- 정선자 조무원 기간만료 사직(1/24)
- 이경희 조무원 이동 ER → ACU(1/20)

호흡치료실

- 월례회의(1/8)
- 부산병영원 호흡기과와 전담간호사 연수(1/8-1/12)
- 소아청소년과와 정기회의(1/17)

CCU

- CV 간담회(1/16)
- CV 유관부서 협의회(1/24)

NRICU

- 부서이동 : 김화경, 박생, 최소현(1/1)
- 11월 신입간호사 도입 : 오주희, 이지은(1/15)
- Patient monitor demo 시행(12/18~1/5)

MAT

- MAT 직무병역으로 전문간호사 발령(1/1)
- 심폐소생술 위원회 이경미, 신유정(1/16)
- MAT 리프트(1/31)

담당부서(2018.02)	담당자	연락처
MICU1/ACU/동관ICU	서가진	886241
MICU2/SICU1-2	김은영	886242
일반병동 사무실	서희경	886244
	T.	6244

The Role of Post-Resuscitation Electrocardiogram in Patients with ST-Segment Changes In the Immediate Post-Cardiac Arrest Period

본 연구는 응급중환자실(ACU) 김윤정, 김원영 선생님께서 의해 수행되어 J Am Coll Cardiol Intv 2017;10:451-9에 게재된 연구로 이번 호의 CME(continuous medical education)로 선정되었습니다.

• 연구의 배경은?

현재 심정지 후 치료지침에 따르면 심정지 생존자들에서 심전도 검사를 시행하고 ST분절 상승이 있는 경우 즉각적인 심혈관조영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자발성 지주막하 출혈(SAH)은 심정지의 잘 알려진 원인 중 하나이며 심전도상 심근경색 또는 허혈때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심근효소(troponin)의 상승이 관찰되기에 관상동맥질환에 의한 심정지와 감별이 쉽지 않다. 특히 SAH는 동북아시아지역에서 높은 유병율을 갖기에 심정지후 환자에서 항혈소판/항응고치료 및 즉각적인 심혈관조영술 전에 심전도소견을 이용하여 관상동맥질환과 SAH를 감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주요결과는 무엇인가?

3개병원 심정지 후 처치 환자 레지스트리를 이용한 1088명의 심정지 생존자들중에서 ST분절이상이 있었던 200명을 대상으로 SAH를 예측하는 지표를 분석하였고 1) narrow QRS (<120 ms):2점 2) atrial fibrillation:1점 3) prolonged QTc interval (≥460 ms):1점, 4) 4개이상의 ST분절하강:1점 와 같은 scoring을 개발하였다 (설명력 0.816).

• 연구의 의미는 무엇인가?

심정지 후 생존자들 중 심전도에서 ST변화가 있었던 환자들에서 SAH가 적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러한 환자들의 심전도 변화패턴을 확인함으로써 심정지 원인을 찾기 위한 가장 적절한 진단방법과 처치를 결정할 수 있다.

마음을 전하는 책

정수진 간호사 (MICU1)

2018년 새해인사를 한지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월의 끝자락이 보입니다. 올해는 저 스스로에게 참 의미가 큰 해인데, 너무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된 1월 해외봉사와 김현진 간호사가 추천해준 책 선물로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이라는 책은 제목만으로도 제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고, 목차의 문구들을 보면서 더 궁금해졌던 책이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 사실 책을 그리 많이 읽지 않는 제게 인문학 책이 많이 어려울 수는 있으나, 이 책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감동을 저도 느껴 보고 싶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이 책은 한국인 최초 바티칸 대법원 변호사가 쓴 책으로, 읽는 동안 재미있는 인문학 강의를 듣는 기분이었습니다. 중간중간 다이어리에 적어서 기억하고 싶은 내용도 많았습니다.이 책의 모든 chapter가 주옥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제게 와 닿은 구절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Dilige et fac quod vis.

사랑하라,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우리 모두는 생을 시작하면서 삶이라는 주사위가 던져집니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돌이켜보면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아 말할 겁니다. 신에게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만큼 이냐고요. 하지만 신은 침묵으로 답하겠죠. 누구도 자기 생의 남은 시간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또박또박 살아갈 밖에는요.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충분히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충분히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남은 생 동안 간절하게 무엇을 하고 싶은가?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매일 어찌던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 속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채워가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구, 동료, 제가 만나는 환

자, 그 가족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마지막 주부터 1월 해외봉사를 떠나기 전까지 매주 봉사를 함께 가는 선생님들과 만나 여정을 준비하면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많은데, 아마 이 구절이 현재 제 감정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 더 마음에 와 닿은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에너지 가득 담아 정진아선생님께 '모든 요일의 여행'이라는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여느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1년 달력을 내가 원하는 계획들로 모두 채워진 못하지만, 그 속에서 또 모든 걸 해내는 우리 간호사들이 저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행이라는 단어는 듣자마자 기분 좋은 설레임을 줍니다. 매일 보던 곳, 가던 곳, 만났던 사람들 말고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 다른 시간도 살아봐야 내 자리의 행복도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떠나지 못한다면 이 책 읽으면서 한 템포라도 쉬어가면서 여유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인들이 책을 선물할 때 하는 말로 '라틴어 수업'의 첫 페이지에 저자가 자필로 써 놓은 글을 빌려 저도 적어봅니다.

'Utere Felix', '읽고 행복하시길!'



From. 정수진 간호사 (MICU1)



"모든 요일의 여행" (김민철 저)



To. 정진아 간호사 (CSICU)

트위스트 상하이(2)



역시나 비싼 값을 하는 레스토랑이었다. 푸르게 익힌 콩가지 볶음은 감칠맛이 넘쳐 났다. 한 줄기씩 치아로 씹을 때 마다 오독오독 끊어지는 식감 또한 일품이었다. 갓 볶은 땅콩 냄새를 풍기며 적토처럼 붉은 탄탄면은 고소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름은 잊었지만 투명한 버섯을 후딱 볶아낸 것도 있었는데 목이버섯 마냥 입 안에서 이리저리 몽근하게 움직이다가

꿀꺽 삼키면 미끈한 것이 속도감 있게 식도를 지나치는 쾌감을 듣게 하며 동시에 코 안 쪽에서부터 깊은 숲의 향을 솟구쳐 오르게 하였다. 돼지 등갈비 마라 볶음은 커다란 늑골 위에 겹겹이 익힌 양념을 올린 것이었는데 팔각향이 굉장히 강력하여 이것이 과연 대만의 것인지 사천의 것인지 국적이 의심되었지만 어쨌든 혀가 얼얼해지는 것이 어떤 정점 같은 맛이 있었다. 이 즐거움 통증을 증화시킬 것이 필요해졌다. 유려한 녹색병에 담긴 프리미엄 칭다오 맥주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다. 중국은 술을 주문하면 종업원이 첫 잔을 직접 따라주는 문화가 있다. 역시나 단발머리가 인상적인 분이 시크하게 잔을 채워 주었다. 꿀꺽꿀꺽, 크아. 아재의 감탄사가 참을 수 없이 튀어나오는 순간이었다.

그러더니 무언가 썩 내뿜었다. 시키지도 않은 음식이 나와 살짝 당황했지만 썩 웃으며 중국말로 뭐라 하는 직원의 말본새가 아마도 서비스인 모양이었다. 작은 스프루트에 맑은 국 같은 것이 소담하게 담겨있었다. 대추의 달큰함이 은은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데워 나온 화채 같은 후식이었다. 시원한 과일로 식사의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희한하게 중국은 여름에도 찬 것을 잘 먹지 않는다. 오장육부의 따뜻한 기를 흐린다고 믿는다 했다. 당연히 그들의 룰대로 할 것이다. 이곳은 중국이므로.

만족스러운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오자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다. 아침의 습함은 지금의 복선이었나 보다. 미리 준비한 작은 우산을 꺼냈다. 산책하기에 방해가 될 정도의 날씨도 아니라 우리는 걸기로 했다. 목적지는 1933 빌딩이었다. 꽤나 멀다면 멀다고 할 수 있는 거리였지만 대로가 아닌 골목길 사이로 루트를 정했다. 사실 너무나 잘 알려진 관광지보다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해먹고 무엇을 사서 어떻게 쓰고 입는지 살짝 맛보는 것이 여행의 묘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도보로 움직일 때는 되도록 그들의 사는 곳을 거치는 코스를 지향하는 편이다. 역시나 그 날도 중국의 일상을 약간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풍문대로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닌 몇 가구당 하나씩 공중화장실이 위치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현자인인 척 들어가보았다. 칸막이가 없는 좌변기 두어 개가 시선을 빼앗았다. 서로 옆에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보며 담소를 나눔과 동시에 배변활동도 함께, 그것도 소리와 냄새를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래, 화장실은 내 볼 일만 보면 되는 것이지 남의 배설물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곳이지. 과속방지턱 따위 가볍게 무시하는 버스기사도 그렇고, 아침마다 씻지 않아도 되는 이유와도 단 번에 통하는 부분이었다.

이십여 분쯤 걸어 1933빌딩에 도착했다. 이곳은 실은 도살장을 멋지게 리뉴얼한 곳이었다. 외관과 큰 골격은 그대로 살리고 모던한 감각을 덧붙여서 을씨년스러울 수 있는 건물의 역사를 영리하게 변모시켰다. 마치 그래, 나 예전에 도살장이었다. 근데 어찌라고, 워낭소리라도 내주라? 하는 식이었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과거 하수도 처리장이었던 선유도 공원과 흡사한 발상이었다. 폐쇄를 시키거나 아예 철거하고

무언가를 짓는 것이 아닌, 기존의 것을 최대한 살린 것이었다. 옛 것이나 구시대적인 것은 말끔히 없애버릴 좋아하는 한국과 중국의 낯은 사고방식에 크게 벗어난 부분이었다. 친환경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용적인 문제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었다. 선유도 공원은 회색의 터를 숲의 녹색과 한강의 푸른 색으로 감싸 생태계 그 자체를 연상시킨다면 1933빌딩은 피와 살이 난무했던 붉고 또 붉은 건물을 냉정한 흑색과 도시적인 회색의 명물로 재탄생 시킨 셈이었다.

외벽으로 몇 건물들을 세워 두고, 가운데는 땀 뚫린 독특한 구조였다. 마치 미로처럼 등글게 올라가는 계단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소가 도살되기 직전 돌아 나오는 코스라고 하였다. 그 길을 중간중간 터서 기념품 가게나 작은 회사로 이어지게 만들어놓았다. 쭈욱 따라 내려오자 남정네 혼자서도 도저히 움직이지 못할 커다란 하늘색 문이 나타났다. 말하자면 제도살장 같은 것이었다. 첫 번째 그리고 웬만한 살육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아무런 냄새는 나지 않았지만 습한 날씨 탓인지 괜한 피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다. 미로의 한가운데에는 얼마 전까지 결혼식장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등글게 올려 지은 건물의 때가 잔뜩 어린 유리창 사이로 꽤나 세련된 장식들이 눈에 들어왔다. 도살장에서 결혼식이라니. 아무리 건물을 시공했던 취지가 좋았어도, 대범하지만 미신을 굳게 믿는 편인 중국인들이 도저히 이용할 것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목이 말라왔다. 1층에 스타벅스가 있었다.

한국보다 두유가 발달한 나라이기에 소이 밀크 라떼를 시켰다. 역시나 콩 비린내만 나는 물은 것이 아닌 걸쭉한 콩국수의 그것처럼 입안을 휘감는 것이 아주 그만이었다. 친구가 주문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담백해 맛이 났다. 재떨이에 차가운 물을 맡아 마시는 느낌. 그래, 이 나라가 커피를 잘 아는 편은 아니야. 녹차라면 모를까. 그리고 그곳엔 중국의 중추절에 맞게 월병도 팔고 있었다. 손바닥만한 크기에 스타벅스의 로고와 중국의 전통무늬가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다. 작은 서랍장 형식으로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보관함에 8개쯤 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엄청나게 비쌌다. 중국의 대형마트에서 비슷한 퀄리티라면 7세트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팔릴 테니 만들어놓은 것이겠지만 누가 사갈지 조금 궁금해졌다. 다시 찬찬히 살펴보니 그나마도 2세트만 남아있다고 싸웠었다. 그 때였다. 명품으로 휘감은 여자가 나타나 하나를 덥석 집어갔다. 역시나 머리는 감지 않았지만 고민도 없이 선택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보니 배낭에 물통까지 꿰찬 여행객 차림은 우리 일행뿐이었다. 아하, 이곳은 부자동네였던 것이다. 주차장에 즐비하게 세워진 자동차들의 브랜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옆 좌석에 앉아있는 남자의 에르메스 서류가방이 보였다. 뭐 잘못된 것은 없었지만 열린 목을 축이고 다음 목적지로 이동하고 싶어졌다. 눈치도 없는 친구는 고새 즐고 앉아 있었다. 너무나 달콤하게 자는 것 같아 차마 깨울 수는 없었다. 과거 도살장에서 죽어가던 소 대신 즐거운 꿈이라도 꾸고 있는 것일까.

공납동 서당

주마가편 走馬加鞭

달릴주走, 말마馬, 더할가加, 채찍편鞭



뜻)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 (예문) 우리 병원은 환자를 많이 보는 전공의한테 연구를 맡깁니다. 주마가편인 것이지요.



2015년 12월 서울의 칼바람을 맞으며 서울아산병원에 입사했다. 며칠 뒤면 입사한지 만 2년이 된다. 초반에는 간호사라는 직업이 나에게 맞는지, 보람찬 일인지도 모르고 시간에 쫓기며 일했다. 물론 지금도 시간에 쫓기며 일하는 날이 많긴 하지만 예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나의 마음가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원래 꿈이 간호사였냐고 물어본다. 그 질문에 단호히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고 지금은 다음에 '그런데' 라는 부사가 꼭 따라 온다. 지금부터 이제 막 걸기 시작한 간호사의 '그런데'의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에 올라왔다. 평생 대구에서 나고 자랐던 나에게 서울은 두렵고 미지의 장소였다. 특히나 직장생활을 하러 온 것이니 부담감은 더 했다. 친구들이 쉬는 순간에도 사투리가 느껴진다고 했는데...이 사투리마저 신경 쓰였다. 다행히 원하던 중환자실에 배치를 받았으나 신규간호사의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울면서 부모님께 전화 한 날도, 출근이 두려워 잠 못 이루던 밤도, 꾸벅꾸벅 졸며 책상 앞에서 공부한 날도 많았다. 이런 시간이 1년정도 지나니 출근이 마냥 두렵지는 않았고, 개인적인 시간도 생겼다. 그런데 이때 간호를 하며 얻는 것은 '월급' 뿐이었다. 가슴 설레게 하는 보람, 미래에 대한 기대는 없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하나, 일을 그만두면 뭘 해야 하나 이 두 생각이 계속해서 머리 속에 맴돌았다. 출근하면 퇴근만 생각하는 지루한 날의 연속이었다.

입사한지 만 1년 반정도 됐을 때 터닝포인트가 되는 일이 있었다. 나이트 근무인 날이었다. 출근 했을 때, 병동은 아주 바빠 보였다. 많은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며 어수선했고 한 환자에게 여러 명의 간호사가 붙어있었다. 부디 저 환자만 말지 않기를 바라며 assign note를 봤는데 웬걸, 내가 담당간호사였다. 좌절 하며 EMR를 보니 2일 전 제왕절개 수술 후 금일 퇴원 예정인 36세 환자였다. 갑작스런 호흡곤란 호소 후 의식과 맥박 소실로 심폐소생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체외심폐기를 삽입했다. 조기진통으로 장기간 침상 안정을 하던 환자로 폐혈전색전증을 의심하고 있었다. 다행히 환자의 의식은 명료하게 돌아왔다. 인계를 받았을 때 환자는 코와 입의 출혈로 각종 검사와 처치가 예정되어 있었다. 험난한 나이트 근무를 직감하고 퇴근은 일찍이 포기하자는 심정이었다.

인계를 받고 환자의 출혈, 활력징후, 체외심폐기에 집중했다. 다행히도 출혈 부위를 찾아 소작술을 시행했고 지혈이 되었다. 지혈이 된 후로 체외심폐기도 잘 작동하고, 헤모글로빈 교정도 빠르게 되었다. 단 몇 시간 만에 환자의 상태가 다이나믹하게 변화하고 그 변화에 맞춰 적절한 처치들을 시행하여 문제해결이 되었다. 그 과정의 일원이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의사소통 하는 과정이 처음으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자세로 간호 할 때는 느끼지 못한 감정이었다. 지혈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한숨 돌리려는 찰나, 환자가 종이와 볼펜을 찾았다. 할 일이 산더미인데 필담을 해야 되다니 반갑지 않았다. 환자가 처음 쓴 말은 '저 이제 괜찮나요? 우리 아기들 볼 수 있는 거예요?'였다. 이 문장을 보고 심장이 철렁했다. 그래 나는 출혈 있는 환자, 체외심폐기를 적용한 환자를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쌍둥이를 출산한 엄마를 간호하고 있었다. 환자는 의료진을 믿으며 일련의 처치들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동안 간호를 하는 나 자신에게 집중했지 간호를 받는 환자에게 초점을 두지 않았다. 많은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며 가족 없이 홀로 무서웠을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 사실을 깨우치게 한 환자에게 너무나 고맙고 죄송했다. 환자에게 '큰 문제들이 해결 되었고, 제가 최선을 다해 봐드리겠습니다'고 대답했다. 그 최선이라는 말이 가슴 깊이 남았다. 이어 환자는 '고마워요. 잘 부탁드려요. 목이 불편한데 움직여도 될까요?'라는 말을 적었다. 잘 부탁한다는 말은 예전에 예사로 들었던 말인데, 어찌가 무거워지는 책임감을 느꼈다. 목을 움직이는 것까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환자의 심정을 생각해보지 않았다. 머리부터 발 끝까지, 숨 쉬고 먹는 것까지 모든 것을 간호사에게 의지해야 되는 환자의 심정이 어떨지... 간호사는 환자를 위한 존재임을 마음 깊이 새겼다. 이제는 교대 후 환자에게 나를 소개하고 오늘 최선을 다해 봐드리겠습니다며 불편한 것은 없는지 먼저 여쭙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간호사가 처음부터 바라던 직업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직업에 매력을 느끼게 되고 미래를 꿈꾸게 되었다. 내가 행하는 간호를 받는 환자를 생각하고 환자들이 좋아하는 과정을 함께 즐거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의 간호의 질을 높이기 위해 미래를 계획하고 행할 것이다.

유익한 생활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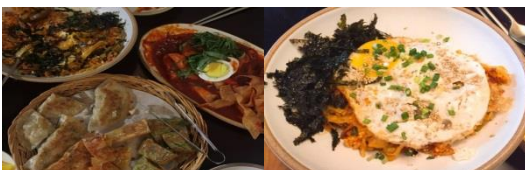
조보슬 간호사 (MICU)

#익선동(종로3가역 주변) 맛집



• 익선동 열두달

한옥 사이에서 만나는 이탈리아인 맛집. 특히 볼로네이즈 퀴사달라/크림소스 감자노끼/연근크림 파스타 등 시그니처 메뉴들이 일품이다.



• 창화당

할머니집에 놀러온 듯한 인테리어에 맛있는 만두. 이집에서 제일 잘나가는 음식은 모듬 만두! 구성은 새우/김치/고추 등으로 되어 있다. 특히 로제 떡볶이도 잘나가는 메뉴이다. 김치볶음밥도 옥수수수와 함께 곁들여 있어 씹히는 맛이 있다.



• 거북이슈퍼 (가맥집)

맥태가 가장 유명한 맥주집. 인테리어와 분위기가 잘나가는 요인. 창가 자리 좋은 뷰가 있다. 과자/라면 등 단순한 메뉴도 판매하고 있다. 대부분 메뉴를 연탄불에 구워준다.



• 잉클비디오타운

먹으면서 비디오 볼 수 있음(비디오룸/까페룸으로 나누어져있음 - 가격도 나누어져 있음) 다양한 맥주/음료 핑거푸드가 준비되어 있음.